

# 수십 년 사용하던 마을 길 울타리로 막혀

###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 차량 통행 차단돼 불편 행정 “주민-토지주와 협의해 불편 없도록 최선”

수십 년간 사용되던 마을 도로 일부에 울타리가 설치돼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마을 도로 일부에는 초록색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이 울타리로 인해 마을 도로는 점점 좁아져 2m 남짓하던 폭이 1m도 안 되게 줄어들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

인근 주민 A씨는 “지난 15일 땅 주인이 도로에 자기 토지가 일부 포함돼 있다며 울타리를 설치했다”며 “수십년간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를 아무런 통보 없이 폐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일제강점기때

일본이 우리나라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도로를 원점으로 측량한 지적 공부 등이 현재의 토지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제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불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만 총 46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전담 인력 부족, 토지주간의 협의 등의 문제로 전체 사업 완료율은 1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토지주 관계자 B씨는 “마을 민원이 계속되자 행정에서는 보상을



17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마을 도로 일부에 초록색 울타리가 설치돼 차량 통행을 막고 있다.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했지만, 소송을 걸어 보상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단지 내 땅에 주택을 짓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도로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협의를 해 볼 생각은 있지만, 반대쪽에도 통행로가 있어 불편은 하겠지만 통행

에 큰 무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인사이드 등의 문제로 사안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을 주민 및 리장,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 “마을교육공동체 꾸려 갈 단체 찾아요”

### 도교육청, 오는 28일까지 읍면학교발전협의회 공모

제주도교육청이 읍면지역 교육균형 발전을 위해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지역 읍·면 단위로 구성된 비영리 마을자생단체로, 읍면지역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주체가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 운영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있는 기관과 단체로, 협의회 취지에 맞는 정책 제안 등의 역할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28일 오후 6시

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도교육청 정책기획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1·2차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에 선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 학교 계약업무 지원으로 업무 부담 경감

### 도교육청, 시설사업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학교별로 진행되는 시설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설계도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학교계약업무 지원 추진 계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계약지원 전담팀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약 업무를 도와 교육 중심의 학교 시스템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학

교계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지원 사항은 학교 시설사업의 사전컨설팅과 설계도서 작성, 시공 지도 등이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와 물품계약, 2000만원 초과 용역계약의 입찰 공고와 낙찰자 선정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교물품 공동 구매를 확대하고 학교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박승운 도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은 “어렵고 복잡한 학교 계약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관련 업무의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이를 통해 교육 중심의 학교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 “교원침해 피해 구상금 지급 안하면 소송”

### 제주도교육청, 바뀐 ‘교원지위법’ 시행에 구상권 행사 절차 등 담은 고시 행정예고

교육활동을 침해 당한 교사의 보호 조치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구상권 행사 절차가 구체화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월 2일까지 ‘제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고시안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이 교육감에게 보호조치 비용부담을 신청하면, 교육감이 30일 이내에 그 여부를 결정해 지급하

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 절차와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을 우선 부담한 교육감은 이를 가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임의로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교육청은 행정예고 기간에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전자우편으로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710-0347.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입찰참가 제한 권한 없다” 지법, 상하수도본부 패소 판결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권한도 없이 한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패소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상하수도 설비 제조업체가 제주도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15년 6월경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관련 제주지방조달청의 구매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A업체는 공사 범위 관련 문제로 제주도, 조달청 등과 다툼을 벌여 소송 끝에 패소했다.

이후 도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018년 11월 19일 개정되기 전의 옛 지방계약법 등을 근거로 A업체가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A업체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 수요기관인 도 상하수도본부라고 해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계절을 잇은 영춘화(迎春花) 18일 서귀포시 신시가지의 한 주택가 담벼락에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준다 영춘화가 노란 꽃망울을 터트려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현석기자

## ‘전남편·의붓아들 살인’ 검찰 구형은?

### 제주지방법원, 오늘 오후 고유정 결심공판 진행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만에 열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고씨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내는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고유정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웨

폰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까지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결심공판에서 고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2020 庚子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업인과 함께 새로워진

# 한림수협!

바다와 같이 푸른 꿈을 키워드리겠습니다.

문화! 복지! 교육!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41-4  
www.hallimsuhyup.co.kr  
(064)795-0522~5